

유통되고 있는 실내조경 식물명과 학명과의 차이

방광자* · 최경옥** · 이태영**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Differences Between 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of Interior Landscape Plants in Practical Circulation

Bang, Kwang-Ja* · Cho, Kyoung-Ok** · Lee, Tae-You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ze scientific names and Korean names of interior plants, considering that consumers' purchasing systems consist of internet and communication media in the era of informatization, to help the consumers purchasing plants, and to propose some directio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name in practical circulation.

This survey was performed during 4 months from May to September in 2000. The survey places for research were wholesale flower market of YangJje Dong and Nam Seoul. The used plants for research were 37 family, 76 genus and 120 species. The main methods of data collection were interview and reference of plants picture books. The main reference for identifying plant name was accomplished by Yoon Ypung-Sub's HORTUS KOREAN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Fifty one plants were identified as using generic or specific name.
- 2) Thirteen plants were identified as using varietal name.
- 3) Twenty four plants were identified as using common name recorded in a plant dictionary.
- 4) Thirteen plants were identified as using incorrect name.

Consequent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search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name of interior landscape plant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academic field and business field for solving various problems which is occurred in plants circulation process.

Key Words : interior landscape plant, plant name, scientific name, common name

I. 서론

오랜 세월동안 식물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어 왔다. 경이로운 존재로서 신앙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식주의 재료로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감상의 대상 및 취미생활을 위한 장식적 요소로써 쓰여지기도 하였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및 물질 만능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의 운동부족, 정서불안, 지나친 스트레스, 사람들의 교류단절 등 환경적·사회적 문제에 봉착되면서 단순히 감상을 목적으로 식물을 도입하던 단계를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써, 정신건강의 증진 수단으로써 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윤점 외, 1998).

이러한 식물의 여러 가지 효능이 검증되면서 식물의 이용이 확산되고, 실내공간으로의 식물도입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실내로의 식물도입은 낮은 광도와 일정한 온도라는 실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실내환경에 적응력이 있는 식물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연유로 실내조경공간으로 도입되고 있는 식물들은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지인 관엽식물로 도입종이 대부분이다(이영무, 1995).

물론 최근에는 우리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자생식물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원활한 생육 및 성장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물은 복잡한 외래어로 명명된 도입종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실내조경식물은 식물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습득하게 되는 식물명(학명)과 유통되는 식물명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내조경식물명에 대한 올바른 정립 및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구매체계가 인터넷이나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명과 유통되는 식물명을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의 원활한 식물구입을 돕고 식물명의 바른 표기 및 올바른 유통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

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서울과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내조경식물의 종류와 식물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통단계별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지는 남서울 화훼단지과 양재동 꽃시장의 도매로 판매되는 곳 60개소와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판매되는 곳 20개소로 총 80개소가 선정되었다.

식물명에 대한 조사는 화훼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한 구두설명과 식물명표에 표기된 식물명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식물명에 대한 문헌검토는 한국원예식물도감(윤평섭, 1989)을 위주로 고찰하였고, 실내조경학(이종석외 2인, 1993)과 실내조경(이영무, 1995) 등 다른 도서들은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조사된 식물은 총 37과 76속 120종이었으며 이 중 자생식물은 11종이었다. 조사된 120종 중 학명이 그대로 유통되는 실내조경식물은 없었으며, 학명 중 일부를 따서 속명(40종)으로 유통되거나 종명(11종)으로 유통되는 실내조경식물은 51종이었다.(표 1과 표 2 참조) 일부 식물은 품종명(13종)으로 유통되고 있었다(표 3 참조).

또한 식물도감에 표기된 식물명으로 유통되는 실내조경식물은 24종이었으며(표 4 참조) 식물명이 잘못 전달되어 유통되는 식물이 13종이었다. 동일한 식물이 2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이름으로 혼용되어 유통되거나 같은 속에 있는 다른 식물이 동일한 식물명으로 총칭되어 유통되는 경우도 25종이었다. 이 중 백합과 드라세나속에 속한 실내조경식물이 가장 많이 혼용되어 유통되고 있었고 야자과에 속한 식물명은 비교적 식물도감에 표기된 식물명이 올바르게 유통되고 있었고 자생식물도 대부분 올바르게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릅나무과 디지고

표 1. 학명 중 속명을 따서 유통되는 실내식물

구분	식물명
교목	파키라(<i>Pachira aquatica</i> Aubl.), 웨닉스야자(<i>Phoenix roebeleni</i> O'Brien), 코코스야자(<i>Cocos nucifera</i> L.), 아레카야자(<i>Chrysalidocarpus lutescens</i> H. Wendl. = <i>Areca borbonica</i> Hort.), 켈차야자(<i>Howea belmoreana</i> (C. Moore & F. J. Muell.) Becc. = <i>Kentia belmoreana</i> C. Moore et Mueller), 아라우카리아(<i>Araucana excelsa</i> (Lamb) R. Br.), 아랄리아(<i>Dizygotheca elegantissima</i> Veitch = <i>Araba elegantissima</i> Hort., Veitch*), 대만 아랄리아(<i>Polyscias fruticosa</i> (L.) Harms), 등근잎 아랄리아(<i>Polyscias balfouriana</i> (Hort. Sander) Bailey = <i>Araba balfouriana</i> Hort. Sander*), 무늬 등근잎 아랄리아(<i>Polyscias balfouriana</i> Bailey var. <i>marginata</i> Hort.), 고사리 아랄리아(<i>Polyscias filicifolia</i> C. Moore ex C. Fourn Bailey = <i>Araba filicifolia</i> Moore ex Fourn.), 셰프레라 홍콩(<i>Schefflera arboricola</i> Hayata 'Hongkong') 등
관목	스파티필럼(<i>Spathiphyllum 'Clevelandi'</i>), 아펠란드라(<i>Aphelandra squarrosa</i> Nees var. <i>louisae</i> Van Houtte), 산세베리아(<i>Sanseveria trifasciata</i> Prain var. <i>laurentii</i> N.E.Br.), 유카(<i>Yucca gloriosa</i> L.), 틸란드시아 에밀리(<i>Tillandsia 'Emilie'</i>), 틸란드시아 키아네아(<i>Tillandsia cyanea</i> Linden ex C. Koch), 크로톤(<i>Codiaeum variegatum</i> Blume var. <i>pictum</i> Muell. Arg. 'Exalant'), 유성크로톤(<i>Codiaeum variegatum</i> Blume var. <i>pictum</i> Muell. Arg. 'Punctatum Aureum' = <i>Croton 'Punctatum Aureum'</i> - 크로톤) 등
지피류	알로카시아(<i>Alocasia x amazonica</i> André), 휘토니아(<i>Fittonia verschaffeltii</i> E. Coem. var. <i>argyroneura</i> Nichols 'Nana'), 익소라(<i>Ixora chinensis</i> Lam.), 아디안텀(<i>Adiantum cuneatum</i> Langsd. et Fisch), 싱고니움(<i>Syngonium podophyllum</i> Schott), 수박필레아(<i>Pilea caderei</i> Gagnep. et Guillaum), 시서스(<i>Cissus antarctica</i> Vent.), 아글라오네마(<i>Aglaonema 'Silver King'</i>), 페페로미아(<i>Peperomia obtusifolia</i> (L.) A. Dietr.), 셀라기넬라(<i>Selaginella kraussiana</i> A. Braun), 미모사(<i>Mimosa pudica</i> L.) 칼란코에(<i>Kalanchoe blossfeldiana</i> Poelln var. <i>scarlet crown</i> Hort.), 꽃 베고니아(<i>Begonia semperflorans</i> Link et Otto), 온시디움(<i>Oncidium ornithorhynchum</i> H.B.K.), 팔라노포시스(<i>Phalaenopsis 'Rose Boysa' x 'Kathleen Ai'</i>), 시클라멘(<i>Cyclamen persicum</i> Mill.) 등.
덩굴류	몬스테라(<i>Monstera deliciosa</i> Liebm.), 호야(<i>Hoya carnosa</i> R. Br. var. 'Tricolor' Hort.), 스킨답서스(<i>Scindapsus aureus</i> (Linden & André) Engl), 네펜테스(<i>Nepenthes alata</i> Blanco) 등.

! : 기존의 학명

데카(*Dizygotheca*) 속(屬)의 아랄리아와 폴리스키아스(*Polyscias*) 속(屬)의 등근잎 아랄리아, 무늬 등근잎 아랄리아, 고사리 아랄리아, 대만 아랄리아는 학명의 일부인 속명을 따서 'Polyscias' 라고 불리워지나 5종이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서 개체 간의 구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표 1에 나타난 식물명은 속명에 종명을 붙여서 동일 속의 각각의 식물을 구별하여 학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보통명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었

다. 또한, 파인애플과 틸란드시아(*Tillandsia*) 속(屬)의 틸란드시아 키아네아와 틸란드시아 에밀리도 'Tillandsia' 라는 속명을 따서 구별없이 유통되고 있었고, 형태적 특성이 다른 파인애플과 브리에세아(*Vriesea*) 속(屬)의 브리에세아 포엘만니(*Vriesea poelmannii* Hort)도 'Tillandsia' 라는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었다. 이들 식물명은 식물을 잘못 구별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식물명잡표를 붙여 정확한 식물명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표 2에 제시된 종명으로 유통되

표 2. 학명 중 종명을 따서 유통되는 실내식물

구분	식물명
교목	세이프리지 야자(<i>Chamaedorea seifrizii</i> Burret), 드라세나 산데리야나(<i>Dracaena sandeniana</i> Sander ex M.T. Mast.), 드라세나 고티에리아나(<i>Dracaena godseffiana</i> Baker. (Sander)), 드라세나 콘시나(<i>Dracaena marginata</i> Hort. non Lam.), 벤자민 고무나무(<i>Ficus benjamina</i> L.) 등.
관목	칼라테아 인시그니스(<i>Calathea insignis</i> Bull.), 칼라테아 마코야나(<i>Calathea makoyana</i> (Nichols) E. Morr.), 에크메아 파시아타(<i>Aechmea fasciata</i> Baker-하이서타) 등
덩굴류	필로덴드론 셀로우(<i>Philodendron sellowii</i> C. Koch),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i>Philodendron oxycardium</i> Schottl), 푸미라 고무나무(<i>Ficus pumila</i> L.) 등

표 3 품종명으로 유통되는 실내식물

구분	식물명
교목	무늬관음죽(<i>Rhapis excelsa</i> Henry ex Rehd, var. <i>variegata</i> Hort.-소편), 드라세나 리플렉사(<i>Dracaena reflexa</i> Lam, 'variegata' = <i>Pleomele reflexa</i> N.E.Br. 'Song of India' † -송오브인디아, 소브인디아), 판다 대만 고무나무(<i>Ficus retusa</i> L. 'Panda' -판다) 등.
관목	디펜바키아 마리안느(<i>Dieffenbachia</i> sp. 'Marianne' Hort.-마리안느), 디펜바키아 안나(<i>Dieffenbachia</i> cv 'Anna'-안나) 등.
지피류	드라세나 콤팩타(<i>Dracaena deremensis</i> 'Virens Compacta'-콤팩타), 아스플레나움(<i>Asplenium nidus</i> L. var. <i>avis</i> Hort.-아이비스), 뉴기니아 봉선화(<i>Impatiens hybrid</i> 'New Guinea'-뉴기니아 봉선화), 코르딜리네 아이치이카(<i>Cordyline terminalis</i> Kunth var. <i>achuka</i> Hort.-이치이카), 안스리움(<i>Anthurium scherzerianum</i> Schott-니나) 등.
덩굴류	네프로레피스 엑셀타타(<i>Nephrolepis exaltata</i> Schott-보스톤), 보스톤 켄(<i>Nephrolepis exaltata</i> Schott var. <i>bostoniensis</i> Davenport-보스톤), 실달개비(<i>Gibasis geniculata</i> (Jacq.) Rohw-엘레강스) 등.

†: 기존의 학명

고 있는 식물들은 벤자민 고무나무와 푸미라 고무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속명과 종명으로 이루어진 학명과 보통명이 동일하므로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덩굴성 식물인 *Nephrolepis exaltata*는 '보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보스톤'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품종명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야자과 라피스(*Rhapis*) 속(屬)의 관음죽은 대체적으로 식물도감에 표기된 보통명으로 유통되고 있었지만 '소편', '서황'으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편'은 무늬 관음죽의 '다루마호', '동양금', '소관금', '조산금', '호관음죽' 등 여러 품종 중 하나인 '소관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며, '서황'은 무늬 관음죽보다 약간 소형으로 잎에 세로줄 모양의 연황록색 또는 황색의 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간 서황금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 var. *zuikonisiki* Hort)이 무늬가 없는 진녹색의 관음죽(윤평섭, 1989)과 구별 없이 전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피류로 쓰이는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이 '니나'로 전달되고, 걸이 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실달개비(*Gibasis geniculata* (Jacq.) Rohw)가 '엘레강스'(윤평섭, 1989)로 전달되는 것도 여러 품종 중 하나의 이름을 따서 유통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표 3에 나타난 식물들은 원예품종으로, 대체적으로 원예종은 재배품종일 경우 학명을 쓸 때 속명과 종명 뒤에 cv.를 붙인 후 품종명을 쓰고 변종일 경우

var. 뒤에 품종명을 붙여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교배종에 따라 야생종에 다른 품종을 교배한 원예품종의 경우 약식으로 속명에 종명과 품종명을 덧붙여 사용하거나 종명을 생략하고 속명에 품종명을 붙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가급적 교배종을 알 수 있도록 속명에 종명과 품종명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품종명만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품종명만 쓰는 것보다 속명에 품종명을 붙여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한국조경학회, 1989).

따라서 품종명만으로 유통되는 '송오브인디아', '판다', '마리안느', '안나', '콤팩타', '아이비스', '이치이카', '엘레강스'는 속명에 품종명을 붙여서 유통되도록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야자과 콜리니아(*Collinia*) 속(屬)의 테이블야자는 보통명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영명(Table Palm)에도 기인하여 불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윤평섭, 1989). 표 4에 나타난 식물들은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학명으로 유통되지 않고 보통명으로 전환하여 유통된 경우로 보통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아이비는 학명도 많이 사용되므로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거나 둘다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체로 식물명이 잘못 유통되는 경우는 코르딜리네 레드 에이지(*Cordyline terminalis* Kunth var. *red edge* Hort.)나 접란(*Chlorophytum comosum* Baker var. *vittatum* Hort)처럼 식물명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자금우(*Ardisia japonica* Bl)와 같이 일부 식물은 형태적

표 4 식물도감에 표기된 식물명(보통명)으로 유통되는 실내식물

구분	식물명
교목	관음죽(<i>Rhapis excelsa</i> (Thunb.) A. Henry ex Rehd.), 종려죽(<i>Rhapis humilis</i> Blume.), 비로우야자(<i>Livistona chinensis</i> R. Br. var. <i>subglobosa</i> Becc.), 테이블야자(<i>Collinia elegans</i> Liebm.), 공작야자(<i>Aiphanes carvota</i> Wendl.) 형운목(<i>Dracaena fragrans</i> (L.) Ker-Gawl), 딱갈나무의 고무나무(<i>Ficus lyrata</i> Warb.), 남천(<i>Nandina domestica</i> Thunb.), 금사철(<i>Euonymus japonicus</i> Thunb. 'Medio-pictus') 등.
관목	소철(<i>Cycas revoluta</i> Thunb.), 멕시코소철(<i>Zamia furfuracea</i> L.), 헤고(<i>Cyathea faurei</i> (Christ) Copel.), 칼라(<i>Calla aethiopica</i> L.) 등
지피류	귀면죽(<i>Cereus peruvianus</i> Mill. f.), 비모란(<i>Gymnocalycium mihanovichii</i> (Fric and Gürke) Br. and R. 'Rubra'), 금황환(<i>Eriocactus leninghausii</i> (Hge Jr) Backbg), 군자란(<i>Chivia miniata</i> Regel var. <i>variegata</i> Hort.), 백정화(<i>Serissa foetida</i> (L. f.) Lam. var. <i>variegata</i> Hort.), 불단풍(<i>Aceriphyllum rossii</i> Engler), 부레옥잠(<i>Eichhornia crassipes</i> (Mart.) Solms-Laub.) 등.
덩굴류	리브체인(<i>Ceropegia woodii</i> Schlechter), 마삭줄(<i>Trachelospermum asiaticum</i> (S. et Z.) Nakai var. <i>intermedium</i> Nakai), 아이비(<i>Hedera helix</i> L.), 백취란(<i>Platynerium alicome</i> Desv.) 등.

특성이 비슷한 식물과 그 특성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못한 채로 전달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식물구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천남성과 *Caladium*속의 칼라디움 바이컬러(적색)와 칼라디움 캔디덤(흰색)은 'Caladium'으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어서 식물구입시 식물의 색으로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이 야기되지만 '칼라'로 불리워지는 경우는 천남성과 칼라(*zamioculcas*)속(屬)의 칼라(*Calla aethiopica* L.)와는 그 형태적 특성이나 생육조건이 다른 데 식물명이 혼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식물명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 5에 나타난 식물들 중 드라세나 콘시나 트리컬러, 구즈마니아 마그니파카, 칼라디움 바이컬러, 칼라디움 캔디덤, 코르딜리네 레드 에이지, 리코리스 스프렌게리는 학명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경우이므로 label에 식물명(학명)을 표기하여 정확한 식물명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데코라 고무나무, 노랑 새우풀, 접란, 녹영은 도입초반부에 쉽게 부를 수 있는 보통명으로 전환되어 유통된 경우로 학명과 보통명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거나 학명과 보통명을 둘다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자금유, 백량금은 보통명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래 도입종이 대부분인 실내식물이 유통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식물명을 조사해봄으로써 교유의 식물명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식물유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된 120종 중 학명이 그대로 유통되는 실내식물은 없었으며, 40종이 속명으로 유통되었고, 11종이 종명으로 유통되었으며, 13종이 품종명으로 유통되었다. 이는 실내식물의 절반이상이 학명 중 일부를 따서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써 실내식물이 대부분 도입종인 것에 기인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생식물의 경우 보통명과 학명을 각각 구분해서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데, 실내식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을 붙여서 올바른 식물명의 유통을 꾀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저절로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명의 일부를 따서 속명이나 종명으로부터 유통되는 경우는 속명과 종명을 붙여서 정확한 학명의 체계를 갖춘 식물명으로 유통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품종명으로부터 유통되는 경우는 속명과 품종명을 붙여서 판매되도록 유도하거나 속명에 종명과 품종명을 덧붙여서 유통되도록 하여 교배한 품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2. 식물도감에 표기된 식물명으로 유통되는 실내식물은 24종이었으며 식물명이 잘못 전달 되어 유통되는 식물은 13종이었다. 또한 동일한 식물이 2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이름으로 혼용되어 유통되거나 같은 속에 있는 다른 식물이 동일한 식물명으로 총칭되어 유통되는 경우도 25종이었다.

따라서 식물명이 도입시기에 부르기 쉬운 보통명으로 전환되어 유통된 경우는 식물명명에 대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학명과 보통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보통명과 학명을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물명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 유통되는 경우는 식물명찰표를 달아 올바른 식물명의 정착을 유도하고, 식물도감에 아직 표기되지 않은 신종인 경우는 신속하게 정확한 식물명을 정하여 올바른 식물명의 정착을 유도하고 앞으로 식물명의 표기 및 명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실내식물은 유통과정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물명이 혼용되고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한국조경학회나 한국실내조경협회가 주관이 되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유통업계에 제시하여 판매시 정확한 식물명(학명 포함)을 기록한 식물명찰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하여 구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식물명의 혼용을 막고, 실내조경 설계시 설계도면에 학명을 같이 표

시함으로써 정확한 식물구입 및 식재를 유도하고, 세미나 혹은 회의등을 통한 학계와 업계의 지속적인 교류속에서 원활한 실내식물 유통을 위해서 식물명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인용문헌

1. 궤병화(1998) 사람의 몸건강에 미치는 원예식물의 영향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1(1) 1-11
2. 박윤점의 5인(1998) 정식원예총론. 도서출판서원 pp 13-17
3. 신혜실(1992) 실내조경계획에 있어 디자인론에 입각한 실내식물 이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3.
4. 윤국병(1993) 조경사전 일조각 pp. 225-315.
5. 윤평섭(1989) 한국원예식물도감. 지식산업사.
6. 이남현(1995) 실내조경에 있어서 식물의 시각량이 시각선호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석사학위논문. pp. 9-11
7. 이영무(1995) 실내조경 기본당. pp 40-300.
8. 이종석, 방평자, 원주희 (1993) 실내조경학. 도서출판 조경. pp. 172-216.
9. 이장복(1979) 대한식물도감. 교학사 pp 102-791.
10. 조동범, 염도의(1985) 시각적 선호에 있어서 Green Foundation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3(1) 95-103
11. 최경옥, 방광자, 허준 (1997) 실내식물의 이미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3) 101-110.
12. 한국조경학회(1989) 조경수목학. 문운당. pp 11-35